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고광필 부단장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급성호흡기질환을 야기시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처음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메르스(MERS), 사스(SARs)와 동일한 베타 코로나바이러스로 모두 박쥐로부터 유래하였다. 처음 발생한 환자들은 수산물과 야생동물 시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물-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 후 발생한 환자들은 이들 시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사례들도 사람-사람 간 전파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무증상 전파 사례도 보고되었다. 전파도 메르스나 사스와 유사하게 비말 또는 접촉을 통해 일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월 4일 24시 기준 전 세계적으로 31개 국가에서 252,154명의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었고, 24,509명의 확진환자(사망 492명)가 발생하였다. 이 중 중국 내 환자 수는 24,324명이고, 사망자 수는 490명이다. 중국 외 환자 수는 185명이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메르스와 사스로 인한 증상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증상은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거의 무증상인 경우부터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다. 주로 보이는 증상은 발열, 기침, 숨가쁨이며, 메르스 잠복기와 비슷하게 감염원 노출 후 2일~14일에서 증상 발현이 관찰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들 대부분은 2차 감염 또는 3차 감염까지도 보고되었지만 감염경로 상 우한시와 연결고리가 확인된 환자들이다. 하지만 우한시를 왕래하는 항공편이 금지 된지 2주가 거의 지남에 따라 향후 발생할 환자들은 2월 4일 발생한 16번 환자(태국 여행력만 있는 환자) 경우처럼 감염경로 상 우한시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 내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추이가 중요한데, 최근 그 환자 증가속도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감염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새로 발생하는 환자를 빨리 발견하여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전파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급성호흡기감염을 갖고 있는 환자와의 가까운 접촉은 피하기
2. 자주 손 씻기(특히 환자 또는 환자가 있는 환경과 직접적 접촉 후)
3. 보호장구 없이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4. 급성호흡기감염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침 예절 지키기
5. 의료기관 내에서 표준적인 감염예방과 관리 준수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계”단계에 있다. 이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를 의미하며 방역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메르스 사태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한편 방역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대응관리 체계를 갖추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감염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